

### 합성부터 시작한 우리 화성산업(3)

#### 1.2. 경제개발계획과 화학섬유공업

광목이나 군복을 염색하여 지어 입던 각급 학교의 교복과 경찰제복에 일대변혁을 일으킨 미쿠론(PVA 섬유의 상표) 복지의 생산업체인 미진화학섬유공업주식회사(한국비니론섬유의 전신)는 일산 2톤 규모의 PVA 섬유공장을 이미 1959년 8월부터 가동시켜 우리 나라 화성산업의 길을 열었다.

그 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 중이던 한국나이론(주)과 한일나일론공업(주)이 63년과 64년에 나일론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화성공업이 본격적으로 개막되는데, 이 두 공장은 제1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 완성되었지만 동 계획과는 독립적으로 세워진 공장들이다.

당초부터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추진된 사업은 화신산업(和信産業)의 비스코스레이온 공장이 처음이며, 잇따른 아크릴 섬유나 폴리에스테르 섬유 공장의 신설과 나일론 공장의 증설들은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막대한 내·외자가 소요되는 이 공장들이 단기간 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모습을 갖추어 수가 있었다.

1961년 5월 16일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부가 피폐한 경제를 되살리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놓는데 이것이 ‘한국형 후진국 경제 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창조되는 계기이고 시점이었다. 즉 전략산업을 우선하여 국가적 지원 하에 적극 육성하는 방식이 채택된 것이었다. 군사혁명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피폐한 민생 즉 의, 식, 주를 해결할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을 건설하는 일이었다.

정유공장과 같은 국가가 해야 할 명분이 확실한 사업외에는 민간이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시 5개년 계획사업을 맡을만한 자금과 경험을 가진

기업가는 아주 한정되어 있었고 그나마 이들은 그 해 5월 28일 공포된 부정축재 특별처리법에 의해 재산은 몰수되고 인신은 구속된 상태여서 사업을 맡아 할 사업주체가 없었다.

경제개발을 추진해야만 하는 혁명정부와 부정축재자란 오명을 벗어나 하려는 기업가의 서로의 필요가 맞아 떨어져서, 경제재건계획에 헌신하겠다는 서약하에 이들은 풀려나는데, 풀려난 이들 부정축재자 13인은 ‘경제재건촉진회’(후에한 국경제인협회로 개칭\*(주))를 구성하고, 이 조직을 통해서 실질적인 5개년 계획의 사업주체가 되었다. 경제재건촉진회는 우선 1차 사업으로 ①양회 ②화학섬유 ③전기 ④비료 ⑤제철 ⑥정유공장을 선정하고, 이를 각 회원별로 분담하여 추진하였는데 업종에 따라서는 기업인 간에 선호도가 달라 조정이 필요하기도 했으나 그 조정은 순조로웠다.

\* 주 : 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없애기 위해 부정축재 특별처리법과 무관한 기업인을 영입하여 20인 이내의 회원을 가짐.

이러한 결정들이 군사혁명 후 만 3개월 만인 1961년 8월 16일까지에 이루어졌다. 혁명정부가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속결이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실제로 부딪치게 되는 난관은, 모든 것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라 근간인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도 모르는데다가 기술과 외자의 도입 등도 물어가며 찾아내야 하는 등 한 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사업추진 주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었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 금성방직(현 쌍용그룹 전신)이 시멘트공장을 탄생시켰고, 화섬공장은 화신, 조선견직, 한국유리계에서 각각 또는 합작으로 건립케 되었으나 화신산업(朴興植)만이 성사시켜 흥한화섬 도농공장(viscose rayon F 15톤)을 세우게 된다. 락희(樂喜 현 럭키금성그룹)도 화신과 같은 인견사공장 건설을

원하였지만 화신에 밀려서 방향을 바꾸고, 송배전용(送配電用) 전선공장을 세우게 되었다(금성전선의 탄생).

위에서 말했듯이, 이와는 별도로 1957년에 설립된 한국나이론주식회사는 스트레치 나일론 가공사로 님은 기반을 토대로 원료인 나일론을 생산할 계획을 추진하여, 1962년 7월 캬텍스(Chemtex)사와 50:50의 합작투자 승인을 얻은 다음 건설을 시작하여 1963년 8월 일산 2.5 톤의 나일론 원사 공장을 준공하였다.

같은 시기인 1957년 태창방직이 설립한 한국양모공업이 화섬업계 진출을 위해 인벤탐(Inventa)사로부터 나일론 제조시설(일산 1.3 톤)을 구입하고 통관을 준비하던 중 4·19혁명이 일어나 정국의 혼미가 계속되는 와중에서 통관이 지체되다가, 다시 5·16군사정권이 들어서자 부정축재특별처리법으로 이 시설이 국가에 귀속되어 버렸다. 그러다가 62년 말에 공매에 부쳐지게 된 것을 소모방협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한일나이론공업(주)가 인수하여 1964년 7월에 공장을 준공시키니 이것이 우리 나라 나일론의 두 번째 공장이다.

제1차 5개년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흥한화학섬유주식회사의 비스코스 레이온사(일산 15 톤)공장은 외자 10,510,000 달러, 내자 30억 8,000만원으로 1963년 11월에 착공되지만, 1964년 5월 3일의 대폭적인 환율인상(130:1 → 255:1)과 자가소비 원료 생산을 위한 부속공장의 건설 등으로 자금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이 늦어져 1966년 12월에야 준공을 보게 되었다.

그 외에 1차 5개년 계획 기간(1962-66) 중에 당국의 승인을 얻고 건설이 거의 마무리 되었거나 진행중인 공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크릴 파이버를 수입하여 방적사를 생산하고 있던 태광산업주식회사가 삼덕무역주식회사와 50:50의 지분으로 1963년 10월 동양합섬주식회사(1971년 태광에 흡수 합병)를 설립하고 상업차관 3,800,000 달러와 내자 1억원을 투입

니혼엑슬란(Nihon Exlan)의 기술로 일산 6톤 규모의 아크릴 공장을 1967년 4월에 완공시켰으며, 이보다 6개월 늦은 1964년 6월 경남모직을 모체로 설립된 한일합성섬유공업주식회사는 상업차관 4,700,000 달러와 내자 1억 5,000만 원으로 아사히카세이(Asahikasei) 기술로 일산 7.5톤의 아크릴섬유 공장을 1967년 1월에 준공시키니, 아크릴 섬유의 제 1호 공장이다. 그 외에 비슷한 시기에 완공된 화섬시설로는 한국나이론의 일산 7.5 톤의 증설(67년 10월), 한국나이론의 일산 1.7 톤 증설(67년 6월)이 있으며,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대한합성섬유주식회사(현재의 대한화섬)의 폴리에스테르섬유 일산 6톤 공장은 68년 3월에 준공되었다.

대한화섬은, 당시로서는 국내의 근간산업이라 할만한 면, 모방업체 21개사가 공동출자하여 자신들의 원료를 자급하여는 의도에서 출범한 회사로서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다른 화섬업종보다 앞선 1959년부터 일산 2톤 규모의 PVA 섬유를 생산해온 미진화학섬유도 뒤질세라 1963년 8월 합섬방적 4,800추 공장을 준공시키고 1964년 6월 당시로서는 첨단 설비인 원액염색(선염)시설을 가동시켜 미쿠론섬유의 성가를 높여 수요를 확대시켜 오다가, 1967년 6월에 일산 5톤을 증설하게 되었으니, PVA 섬유의 최전성기라 할 것이다.